

조선시대

1. 조선시대 지방편제와 향교,사림

조선의 집권체제는 태종대(1400~1418)의 관제개혁을 시작으로 성종 16년(1485)에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조선사회는 양반이 최고의 신분층을 형성하면서도 과거科擧를 통한 관료들이 중심이 된 양반관료제兩班官僚制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의 지방제도 역시 건국 이후 더욱 정비되어 8도제로 완비된다. 이로써 전국은 8도로 구획되고 그 아래에 부府·목牧·군郡·현縣을 두었다. 이러한 지방제도는 중앙집권적 정치형태를 반영한 것으로 고려시대보다 더욱 강화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고려시대의 지방제도는 동일한 행정구역이면서도 5도와 양계兩界로 구분하였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屬縣이 광범하게 존재하여 호족豪族·향리鄉吏들이 인적人的으로 지방을 장악한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조선사회는 양계 자체를 일반 행정구역인 도道로 전환시켰으며, 지방관을 대거 파견하여 속현이 없어지고 호족·향리를 배제하는 철저한 군현제郡縣制를 실시하여 일원적인 중앙집권체제를 이룩하였다.

영광은 조선초기의 대대적인 군현 병합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를 보지 않고 나주목에 소속되었다. 그러나 종래 부곡이었던 진량陳良·홍농弘農·공아貢牙가 지방관이 직접 지배하는 직촌直村으로 편제되고, 대안大安과 망운望雲이 향鄉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개편은 천민집단의 해체라는 역사발전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피폐한 임내任內를 개편하고, 감무監務 파견의 군현에 종래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었다. 또한 군현의 이속移屬 과정에서 태조 1년(1392)의 해제현에 이어 태종 9년(1409)에는 모평현이 함평현과 합쳐져 함평현으로 분속되는 관할지역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태종 7년(1407)의 인보법隣保法에서 비롯된 면리제面里制의 전면 시행 속에서 영광은 다른 지역보다 많은 331호수에 인구 2,137명으로 나타나 당시 영광이 나주와 함께 서남해지역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면리제는 임진왜란 이후 수취제도 개편과 호구 파악 등의 추이에 따라 촌락단위의 편제가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면리제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영조35년(1759)의 『여지도서輿地圖書』와 정조 13년의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당시 영광은 각각 12,672·12,691호에 44,619·44,783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29~30개 면으로 구성된 영광의 면리 편제는 1914년 행정개편 때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군사제도에서 영광의 번상군番上軍은 세조 때에 확립된 오위五衛 중에서 총좌위忠佐衛 소관의 나주에 포함되어 우부에 속하였다. 또한 지방군 편제로서는 세조 3년(1457)에 확립된 진관체제鎭管體制에 의거하여 영광군수가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로서 나주진관에 소속되었다. 이 체제는 주·거진主巨鎭을 중심으로 여러 진들이 소속된 하나의 진관으로 편성함으로써 자전자수自戰自守하는 독립적인 군사거점의 성격을 갖도록 한 것이었다.

영광은 연변沿邊에 위치한 연읍으로 왜구 방어가 긴요했기 때문에 읍성邑城과 같은 방어시설의 완비가 필요하였다. 세종 3년(1421)에 고려시대의 우산성牛山城을 개축하여 영광성으로 개칭하고, 2년 뒤에 영광읍성을 축조하였다. 그 후 우산성이 훼손되고 영광읍성의 공청公廳이 비좁아 세조 때에 새로운 영광읍성城山城이 신축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까지 그 기능을 다하다가 현재 원형이 대부분 훼손된 상태로서 일부의 흔적만 남아있다. 이와 함께 조창漕倉을 보호하기 위해 법성진法聖鎭城이 축조되었다. 고려시대에 설치된 부용창芙蓉倉이 조선시대에 이르러 15개 군현을 관할할 정도로 그 비중이 더욱 커지자 법성창法聖倉으로 개칭되고 그 소재지도 현재의 법성포로 이견되었다. 더구나 중종 7년(1512) 무렵에는 나주 영산창이 폐창되면서 나주 소속의 주현을 대부분 흡수하여 28개 군현의 조세를 관할하는 전국 최대의 거창巨倉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종 9년(1514)에 법성진法聖鎭이 설치되고 만호萬戶를 배치하여 수군을 증강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성창의 중요성은 조선후기에 더욱 높아져 수군첨절제사가 파견되고, 정조 13년(1789)에는 독진獨鎭으로 승격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법성진성은 군사적 요충지인 법성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말韓末까지 그 규모가 확장되어 왔으나 순종 원년(1907)에 폐진廢鎭되었으며, 지금은 그 흔적만이 남아있다. 특히 영광은 본론에서 언급된 것처럼 여러 목장이 설치된 지역이었으며, 여러 진상·특산품들을 통해 다른 지역과 비교되는 영광의 물산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초기에 있어서 영광의 유학 발달과 유학자 배출은 매우 주목된다. 물론 이 시기에 봉당정치朋黨政治의 전개 추이에 따라 서로 대립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선조에서 숙종 이전은 봉당정치의 성립·난숙기로서 부정적 당쟁黨爭과는 다른 봉당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역적 특성도 있었다. 따라서 영광 향교鄉校가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사림士林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임진왜란을 비롯한 숭한 국가적 시련기에 전국 차원의 의병을 일으켜 오늘날 영광이 충의忠義의 향토로 거듭나게한 배경이었다. 특히 영광의 지역성을 뛰어넘은 학술발전과 성리학의 철학적 수준은 일부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헌에 이들의 고매한 인품과 학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향교는 고려시대의 향학鄉學을 정비하여 1읍 1개교를 원칙으로 지방에 설치했던 국립 교육기관이다. 영광향교는 조선 건국(1392) 직후인 1407년에 성균관을 복원할 때 참고했을 정도로 매우 규모가 있었으며, 이는 곧 고려 공민왕 때에 창건되었다는 구전口傳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시사한다. 그 후 새로이 영광읍성을 신축하고, 세조 11년(1465)에 관사를 준공할 무렵에 지금의 교촌리로 이전되었다. 영광향교는 배치구조상 제향祭享 공간인 대성전大成殿을 앞에 두고, 교육공간인 명륜당明倫堂을 뒤에 배치한 ‘전묘후학前廟後學’으로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향민 교화와 미풍진작을 통한 예교사회禮敎社會의 구축에 진력한 교육기관이었다. 물론 향교는 16세기 이후 서원의 흥성으로 침체를 면하지 못한 채 고종 31년(1894)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교육기능이 상실되었다. 그러나 향교는 서원書院과 함께 향토의 정신적 지주로서 민족의 위기극복과 선현을 닮으려는 결집체이자 한국정신의 산실産室으로서 오늘날의 산정신으로 계승되고 있다.

그런데 16세기 이후 관학의 침체와 서원을 비롯한 사학의 발전은 사람 성장의 매개체가 되었다. 이들은 조선초기에 유향소留鄉所 등의 혁파와 복립 과정을 거친 후 서원을 설립하고 향약鄉約을 보급하면서 향촌사회를 주도하게 된다. 물론 이들은 거듭된 사화士禍를 겪으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연산군대의 갑자사화 때에 죽음을 당한 나주 출신의 최부崔溥(1454~1504)는 호남사람의 형성에 기여한 인물로 그의 문하에서 윤효정이 배출되었다. 그의 아들 윤구가 이응종李應鍾형제를 가르쳐 동인東人에서 남인南人으로 연결되고, 영광에 내려와 후진을 양성했던 송흙宋欽(1459~1547) 등을 통해 영광사람의 학맥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영광을 비롯한 호남사람들은 선조 22년(1589)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인 기축옥사己丑獄死를 계기로 시련을 겪게 되었다. 이 사건은 동인을 구축驅逐하기 위해 서인이 전개한 조작극이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제기될 정도로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반대편에 있었던 정개청鄭介淸을 비롯한 1천여 명의 호남사람이 피해를 입은 대사건이었다. 영광지역에서도 동인의 이발李潑 가문과 인척관계를 맺었던 이황종이 정여립일파로 몰려 죽임을 당하여 그 여파가 전국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사건은 선조대에 봉당정치가 확립되기 이전의 성립 초기에 일어난 것으로 이들 사람들이 영남학파嶺南學派의 주리론主理論과 기호학파畿湖學派의 주기론主氣論으로 한국철학의 지평을 확장하면서 선조의 즉위와 함께 권력집단에 대한 비판과 유교이념의 실현이라는 입장 차이 속에서 그 자체 동·서인으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후 이들은 봉당에 관계없이 임진왜란을 극복하게 되며, 이는 곧 당시 영광사람들이 거국적으로 거의擧義한 배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의리정신의 발양지 영광

영광은 임진왜란壬辰倭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 이괄李适의 난에 걸쳐 사람의 의리義理 정신에 바탕을 둔 의병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한다. 성리학이 이념적 정치교학으로 더욱 정착된 것은 사림세력의 성장에서 비롯된다. 이들은 유학적 정통론正統論을 재해석하여 의리정신을 고양하고, 도통道統을 보편적으로 세우려고 하였다. 특히 성리학은 벽이단關異端· 춘추대의春秋大義 정신이 강하여 정학正學 이외의 사상과 이민족異民族을 배척하기 마련이었다. 의리는 인간이 현실사회에서 인간답게 ‘마땅함’과 ‘올바름’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잘못된 정치와 현실을 비판하는 정신으로 기능했으며, 외민족의 침략에 항거하는 의병운동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바로 영광의 기의起義는 국가존망國家存亡의 위난危難에 처했을 때 생명까지 내맡길 수 있는 참용기와 결합한 사람들의 의용義勇으로 실천된 것이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영광의 일부 사람들은 고경명과 최경회 의병진에 합류하거나 의곡모취義穀募聚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무렵 군수 남궁견南宮澁이 모친상을 당하여 부재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10월 18일부터 이듬해 1593년 2월 28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이응종李應鐘을 도별장都別將으로 한 영광사람의 읍성방위의 수성동맹체제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활약상은 영조 29년(1753)에 간행된 『임진수성록壬辰守城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수성군의 전투체제가 매우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었고 ‘자보향리自保鄉里·양도사수糧道死守’의 굳은 의지가 규약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성군은 왜군과의 화의소식이 전해지면서 해체되지만 전시체제에서 치밀하게 편제된 수성방위조직은 대표적인 항보의병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심우신沈友信(1544~1593)은 『호남절의록』의 개별 항목에 ‘표의장심공彪義將沈公’ 사실이 기재될 정도로 크게 활약한 영광 출신 의병장이었으며, 김천일·최경회와 함께 제2차 진주성전투를 지휘하다가 순절하였다. 이러한 영광사람의 대의는 인조 2년(1624)에 이괄의 난리가 일어나자 다시 갑자창의甲子倡義로 계승되었다. 당시 활동상은 그 일원이었던 신응순辛應純(1572~1636)의 『성재집省齋集』 별집에 기록 정리되어 있다.

이 사건은 평안병사 이괄이 인조반정仁祖反正의 논공행상에서 직접 표면화된 서인 집권층 내부의 권력투쟁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당시 영광사람은 국왕이 공주까지 피난한 상황 속에서 신유일辛惟一 등 50여인을 주축으로 호남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다. 이들은 의곡도청義穀都廳을 설치한 후 각 고을 책임자인 도회관都會官을 두고 호남 54개읍을 대상으로 가장 긴급한 모곡 활동을 전개하여 단시일에 약 3천석에 이르는 의곡을 수합할 수 있었다. 더구나 호남 전체의 중심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영광지역의 전란 피해가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0일내에 100여석의 모곡을 수합한 것 등은 그 의미가 매우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각 면별로 신분에 관계없이 모집된 의병은 호남의병진의 중심을 이루어 군수 원두표元斗杓의 지휘하에 인조가 환궁할 때까지 근왕군勤王軍으로 활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김난수金蘭守는 선조 36년(1603) 무과에 급제한 후 정충신의 막하에서 큰 전공을 세워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에 녹훈錄勳된 사실도 특기된다.

그런데 인조 5년(1627) 명과의 연결을 경계하고 있었던 후금後金이 인조 즉위의 부당성을 구실로 정묘호란丁卯胡亂을 일으켰다. 그 후 인조 14년(1636)에는 군신관계 강요에 대항코자 했던 조선을 거듭 침공하여 병자호란丙子胡亂을 일으키자 결국 국왕이 삼전도三田渡에 나아가 항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침 속에서 영광의 ‘정묘거의’는 호남이 임진왜란 때에 의병의 본고장이었음을 전제로 다시 거의할 것을 청원한 통문通文에서 비롯된다.

특히 서울에서 지방으로 통문을 보낸 인물들 중에서 신응망·김여옥은 영광출신이었으며, 바로 신응망은 수성동맹 중사관이었던 신장길의 아들이자 갑자창의의 주역이었던 신유일의 족질族姪이다. 또한 ‘병자창의’에서는 연합부대인 여산 의병청에 의곡 1백석과 의병을 파견했으며, 영광도유사 이희웅을 비롯한 사람들이 활약하였다. 이는 영광이 임진·갑자 창의를 줄곧 계승하여 일어난 ‘거의攀義’의 중심지였고,

이들의 활동상은 『정묘거의록』 과 『호남병자창의록』 에 올라있다.

이러한 전란 속에서 수은睡隱 강항姜沆의 행적과 학문은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왜 군에게 붙잡혀 일본에 유폐되었으나 인품과 학덕이 높아 후지와라 세이카藤原醒窩(1561~1619)에게 성리학과 예법을 전수시켜 일본 성리학性理學의 아버지로 추앙받았으며, 그에게 감화된 일본 지식인의 도움으로 귀국하였다. 그 후 스스로 죄인으로 자처하면서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윤순거尹舜舉를 비롯한 문인 학자들을 양성하였으며, 『간양록看羊錄』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임진왜란 이후 영광에서 의병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가운데 그의 인척과 문인들이 다수 포함된 사실에서 강항의 산정신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영광사람은 임진왜란에서 병자호란에 걸쳐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뚜렷한 활동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임진년의 읍성 수성동맹원이었던 재지사림의 후예들이 다른 지역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했다는 사실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큰 것이었다. 특히 전란 중에도 기록들을 남긴 정성과 호국의 의지는 매우 높게 평가되는 것이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함께 이들의 학맥과 사상이 더욱 연구되어 지역성을 뛰어넘어 한국사에 있어서의 지위가 새롭게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조선후기 서원, 사우와 사회상

영광의 학술 발전과 사림 진작에는 영광향교와 함께 서원書院 같은 사학기관이 크게 기여하였다. 영광의 서원은 그 설립시기가 대체로 뒤늦고, 처음 사우祠宇에서 전환된 것이 다수를 이루지만 한국 서원의 성격처럼 사림정신의 산실産室이었음은 물론이다.

한국의 서원은 중종 38년(1543) 주세붕周世鵬이 세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효시로 삼으며, 이 서원은 명종 때에 이황李滉의 건의에 따라 소수서원紹修書院으로 개칭되어 최초의 사액서원賜額書院이 되었다. 이러한 서원은 16세기에 거듭된 사화士禍를 배경으로 사림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서원은 학문을 익히고, 교육하면서 봉당정치朋黨政治의 토대이자 향촌 교화를 주도했던 명망 있는 사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17세기 숙종 이후 봉당정치가 파탄되고, 일당전제一黨專制·세도勢道 정치의 당쟁黨爭으로 변질되는 시대추이 속에서 서원과 사우가 난립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선현先賢 제향祭享도 변질되어 그 당파의 대표적인 인물과 조상들을 현양할 뜻에서 후손과 문중에서 세우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사회적 폐해가 심화되자 고종 5년(1868)에 대원군大院君의 휘철령毀撤令이 일단락되어 전국 47개소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영광의 서원과 사우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광복 이후까지 민족의식 고취 등 여러 배경에서 복설復設되었거나 신설된 성격을 지닌다. 본론에서 자세하게 언급될 것이지만 현재 영광에는 묘장서원敎長書院·내산서원內山書院·이흥서원驪興書院·계송서원桂松書院·무령서원武靈書院·보촌서원甫村書院·송림사松林祠·우산사牛山祠·월현사月峴祠·지산사芝山祠·덕림사德林祠·남강사南崗祠·송촌사松村祠·검산사儉山祠·장산사長山祠·지장사芝庄祠·임진수성사壬辰守城祠 등이 있다. 이들 서원·사우는 그 행적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학덕과 충절의 요람이었다.

그런데 조선후기는 노론老論 일당전제정치마저 청산되고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정치기로서 사회·경제적 모든 부문에 있어서 극심한 부패가 만연된 시기였다. 이는 국가재정의 근원이 되는 동시에 농민의 절대적 부담이었던 전정田政·군정軍政·환곡還穀의 삼정문란三政紊亂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사회의 피해와 농민의 몰락을 가져와 결국 조선사회는 철종 13년(1862) 진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민중항쟁으로 확대되어 개항 이후까지 즐기차게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조선후기 영광의 사회상은 자료상 사계射契와 둔전屯田 경영, 민장民狀 등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영광읍에 소재한 남극재

南極齋에는 사계 문서 18종이 소장되어 있다. 이 사계는 영광의 향리와 군관들이 선조 20년(1587)에 조직한 것으로 주로 친목과 공제共濟를 위한 것이지만 후대로 갈수록 상세해지는 운영 규정에 이들 중인층의 지위와 생활상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영광은 중앙 각 기관의 농민 침해가 극심한 지역의 하나였다. 본래 영광은 1897년에 지도군이 신설되기 이전까지 많은 섬을 보유하였다. 이들 섬과 연안지역은 중앙 각 기관의 절수지折收地가 되어 어장세와 토지세를 중첩 납부하는 형편에 있었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 각 기관이 재원조달을 위해 지방에 많은 둔전을 설치한 결과 소유·경작·수세收稅의 성격상 수많은 분쟁이 초래되었다. 『영광군사례(1888)』에 따르면, 19세기 영광에는 13개 이상의 기관에서 보유한 700여결의 둔전이 있었으며, 전체 10%를 점유하여 그 비율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만큼 이를 둘러싼 영광지역의 지역 갈등과 분쟁이 극심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토지는 물론 각종 명목의 중첩된 수세로 수탈한데 그 요인이 있었다.

물론 조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강구하기도 했으나 조선후기의 현실에서 그 폐해가 심화되기 마련이었다. 특히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의 영광 『민장치부책民狀置簿冊』은 19세기 후반 영광지역의 사회상을 반영한 기초 자료에 속한다. 이 자료는 영광주민들이 관아에 올린 일종의 청원 소송장인 민장과 그에 대한 지방관의 처결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으로 1870년 6~12월, 1871년 1~12월, 1872년 1~11월, 1897년 2~5월등 4년분 총 7,291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제출한 계층은 일반민이 가장 많아 5,082건 69.7%이며, 이들 민 사이의 부채·산송山訟을 둘러싼 경제 분쟁도 2,407건에 33%를 차지한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와 민 사이에 전정·군정·환국의 삼정을 둘러싼 조세 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신분제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서 평민과 양반 사이의 갈등과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사실도 영광에 국한되지 않는 조선의 사회상이었다.

특히 영광의 특기할 만한 사항은 1532년, 1629년, 1755년에 발생한 강현降縣과 함께 당대의 대성리학자였던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1607~1689)과 얽힌 망화정望華亭(한강이 최초 건립자로 추정)이다. 강등이란 읍민 중에서 강상綱常·반란죄叛亂罪 등을 범했을 때 내려지는 일종의 통제책이었던 것이지만 영광의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곧바로 환원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수면九水面 해안가에 위치한 망화정과 영호정 등은 현존하지 않으나 응암鷹巖과 그 주변의 절경絶景으로 이름난 명승지였고, 당대의 대유학자였던 송시열을 비롯하여 많은 문인들이 족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